



지난 7일 열린 일본 F1 경기에서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알론소의 머신(페라리)이 출발하자마자 고장을 일으켜 경주로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 때문에 레이스를 기권한 알론소는 이 대회 우승자인 페텔에게 1위 자리를 위협받게 됐다. /연합뉴스

알론소 194점	페텔 190점
-------------------------------	------------------------------

F1 1위 14일 영암에서 바뀔까

일본 그랑프리 알론소 기권 ... 랭킹 포인트 4점차 박빙 승부

2012 F1 월드 챔피언의 윤곽이 올 가을 영암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는 12일 개막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와 세바스찬 베텔(독일·레드불)의 우승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론소와 베텔은 지난 7일 막을 내린 일본 대회에서 점수 차가 4점으로 좁혀져 한국 대회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론소는 드라이버 부문 랭킹 포인트 194점으로 아슬아슬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짧은 F1 황제' 페텔이 190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일본 그랑프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알론소와 페텔의 점수 차는 29점이었으나 1위에 25점, 2위에 18점이 주어지는 F1 그랑프리 대회 규정 상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고, 남은 대회 결과에 따라 충분히 역전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일본 대회에서 이번이 일어났다. 현 랭킹 포인트 1위인 알론소가 출발하자마자 사고를 내고 서킷 밖으로 밀려나더니 곧 기권해버린 것이다.

페텔은 막강한 경쟁자 없이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레이스를 펼쳤고 손쉽게 랭킹 포인트 25점을 거머쥐었다.

점수 차이는 단 4점, 한 번의 레이스만으로도 순위가 바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2번의 그랑프리에서 치른 영암에서 2010년에는 알론소가, 2011년에는 페텔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페텔은 2010년 당시 전체 55바퀴 중 46번째 바퀴까지 선두를 유지했지만 엔진이 갑자기 정지하면서 기권했다.

당시 2위를 달리고 있던 알론소가 선두를 이어받아 우승했다.

페텔은 2011년에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해 2010년의 아쉬움을 풀었다.

이번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페텔이다.

만일 페텔이 이번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드라이버 부문 1위에 올라서게 된다.

페텔은 2010년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을 놓친 이후 브라질과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연속 1위에 오르며 시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페텔은 영암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1위를 탈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알론소는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한국 대회에 참가하는 24명의 드라이버 중 챔피언 기록을 가진 드라이버는 페텔, 슈마허, 라이코넨, 알론소, 해밀턴, 버튼 등 6명이다. F1 역사상 6명의 타이틀 소유자가 한 번에 달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F1 코리아 체커플래그 가수 '싸이'가 흔든다

마지막 바퀴 앞두고 등장 경기 끝나면 F1 축하공연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완주를 알리는 체커플래그를 흔든 체커플래거에 가수 싸이가 선정됐다. 흰색과 검은색 체크무늬인 체커플래그는 마지막 바퀴(55랩)를 앞두고 등장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체커플래그를 흔든 인사는 주로 F1대회 타이틀스폰서 최고책임자 또는 해당 국가의 수상 등 유명인사가 맡는 것이 통례다. 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가 은퇴한 2006 브라질대회에서는 축구황제 펠레가 체커플래거로 선

정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싸이는 결선이 끝난 오후 6시부터는 F1 경주장 내 상설공연장에서 F1 한국대회를 축하하는 '싸이 F1 축하공연'을 펼치고 15일 새벽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회 전일권(12~14일)이나 일요일권(14일)을 소지한 관람객은 싸이 축하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1 한국대회는 12일 연습경기부터 14일 결승전까지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리며 지상파 MBC TV와 케이블 SBS ESPN에서 생방송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FA 자격 얻은 김원섭 "KIA에서 우승하고 싶다"

KIA 유일의 3할 타자 ... "광주는 내 야구의 고향"

2013시즌? KIA에서 다시 우승하고 싶다! KIA 유일의 3할 타자 김원섭에게 2012시즌은 만족스러우면서 부족한 해다.

만성간염을 앓고 있어 시즌 중반 자리를 비운 것만으로도 시즌에는 부상과 부진 없이 120경기에 나서 0.303라는 타율과 61타점 60득점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팀의 4강 탈락을 생각하면 마음이 허전하다.

김원섭은 "시즌 시작 전에는 후배들과 경쟁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나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몸이 가벼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 팀 성적에 생각하면 많은 책임감이 든다"며 "중심타자로서 더 좋은 활약을 해야 했다. 득점권에서 더 잘 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만행이중범을 떠나보낸 5월26일 LG와의 경기.

이중범 은퇴식이 열린 이날 김원섭은 1회 선취타점을 올린 뒤 3-4가 된 7회말 2사 1-2 루에서는 3루타를 터트리며 5-4로 재역전을 이뤄냈다. 김원섭의 활약과 함께 KIA 선수

들은 이날 떠나는 전설에게 6-5의 값진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다.

어려운 팀 상황 속에서도 베테랑다운 활약을 하며 자신의 야구 인생에 최고의 기록을 남긴 2012시즌, 김원섭에게는 중요한 반환점이기도 하다.

김원섭은 올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었다. FA신분이기 때문에 오는 17일 시작되는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김원섭은 "모처럼의 방학을 얻게 됐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차분히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웃었다.

김원섭의 스토브리그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이지만 최우선은 KIA다. 자신의 야구 고향이자 따뜻한 팬들과 동료들이 있는 곳

이기 때문이다.

김원섭은 "내 가치를 인정 받아서 앞으로 KIA 선수로 뛰고 싶다. 내가 뛰어왔던 곳이고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다"며 "내년 시즌 기존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KIA가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또 우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골든 글러브도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목표다.

김원섭은 "시상식에 가서 나도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올 시즌에도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골든 글러브를 받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끼리' 김응용 감독 한화 지휘봉

총 9억원에 2년 계약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제9대 감독으로 김응용(71·사진) 전 삼성 라이온즈 사장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김응용 신임 감독의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금 3억원과 연봉 3억원 등 총 9억원에 사인했다.

한화는 지난 8월말 한대화 전 감독을 성적 부진으로 해임하고 한용덕 수석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로 잔여 시즌을 치르면서 새 사령탑을 찾아왔다.

김 감독은 사령탑으로 전무후무한 '한국시리즈 10승 신화'를 달성하며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단 최고경영인까지 오른 한국프로야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부산상고-우석대를 졸업하고 한일은행 선수 시절 국가대표 단골 4번 타자로 장타력을 과시했던 김 감독은 1983년 해태 타이거즈(KIA의 전신) 사령탑에 올라 프로 지도자로 입문했다.

이후 2000년까지 18년 동안 해태를 이끌며 통산 9번이나 한국시리즈 정상을 밟고 '우승 청부사'라는 애칭을 얻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동메달을 일구기도 했다.

2001년 우승에 목마른 삼성 라이온즈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긴 김 감독은 2002년 한국시리즈에서 LG를 물리치고 개인 통산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안았다.

2004년에도 한국시리즈에 올랐으나 9차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현대 유니콘스(베네티 히어로즈의 전신)에 우승컵을 내줘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패배를 경험했다. 김 전 사장은 그해 말 삼성 지휘봉을 제자 선동열에게 물려주고 삼성 사장에 올라 야구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현장 감독이 구단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내 스포츠 사상 처음이다.

김 감독은 삼성 사장으로서 2005~2006년 선동열 감독과 힘을 합쳐 한국시리즈 우승을 따낸 등 2010년 물러날 때까지 6년간 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연합뉴스